



삼일회계법인

2026년 경제 및 M&A 시장 전망



최재영 경영연구원장
March 2026

정경수 M&A센터장

- 1 경제 전망과 트렌드 변화
- 2 M&A 시장 전망 및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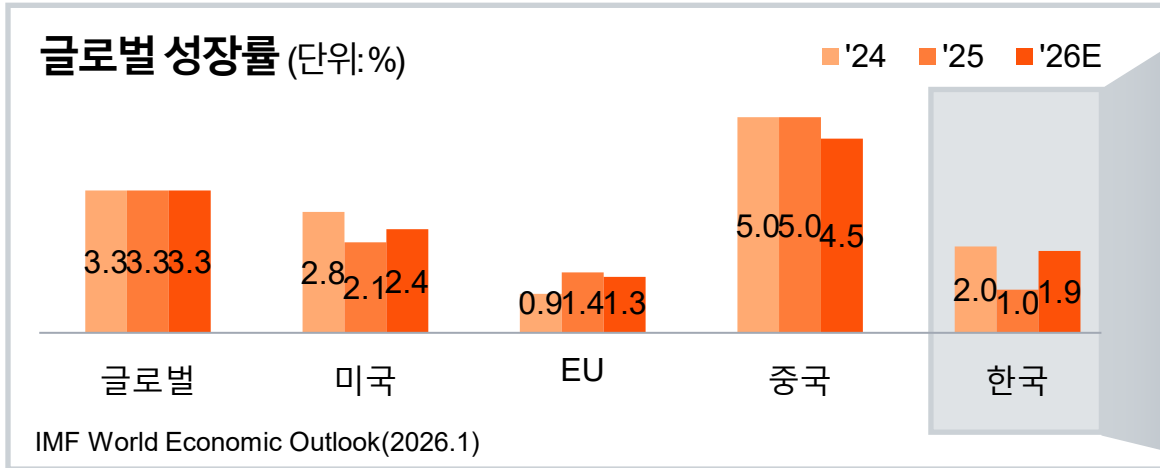
Agenda



경제 전망과 트렌드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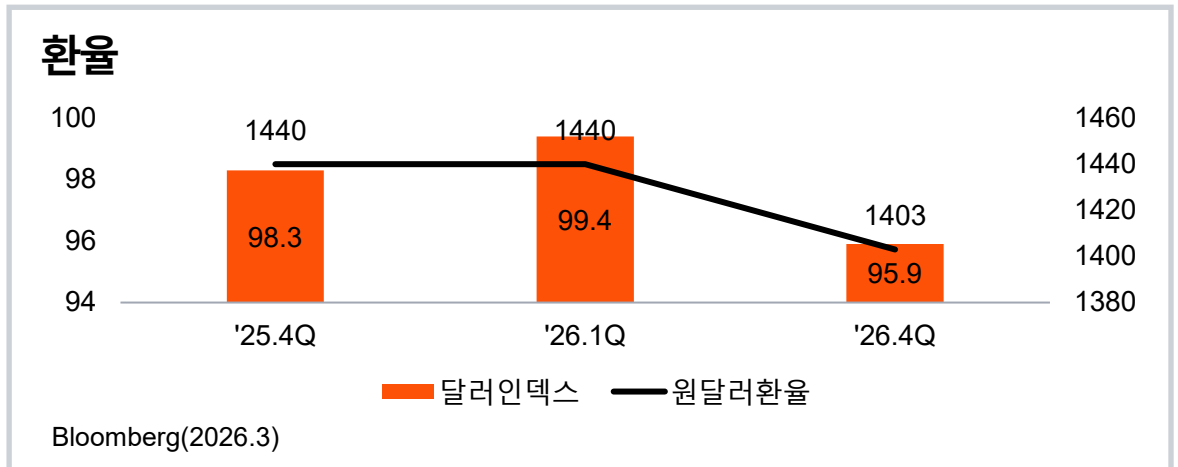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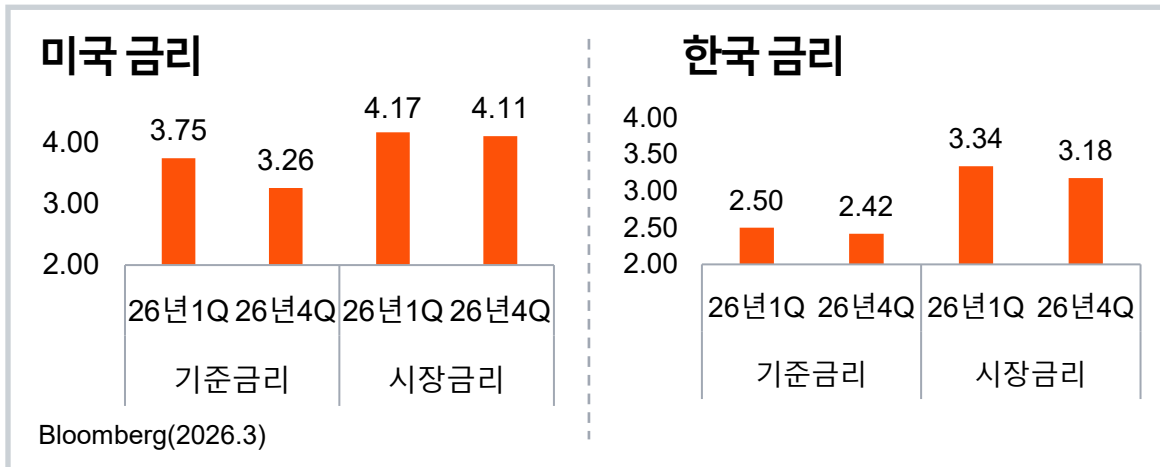
1. 2026년 경제 전망

- 성장률: 글로벌은 예년 수준 유지, 미국은 선방, 중국은 둔화, 한국은 큰 폭 반등
- 금리: (미국) 정책금리 1~2차례 인하, 시장금리 4% 초반대에서 횡보; (한국) 기준금리 유지, 시장금리 소폭 하락
- 환율: 달러 인덱스 소폭 하락,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



부문별 성장률 전망(한국은행) (단위: %)

	'24년	'25년	'26년E	'27년E
GDP 성장률	2.0	1.0	2.0	1.8
민간소비	1.1	1.3	1.8	1.8
건설투자	-3.3	-9.9	1.0	1.5
설비투자	1.7	2.0	2.4	2.0
재화수출	6.4	3.1	2.1	2.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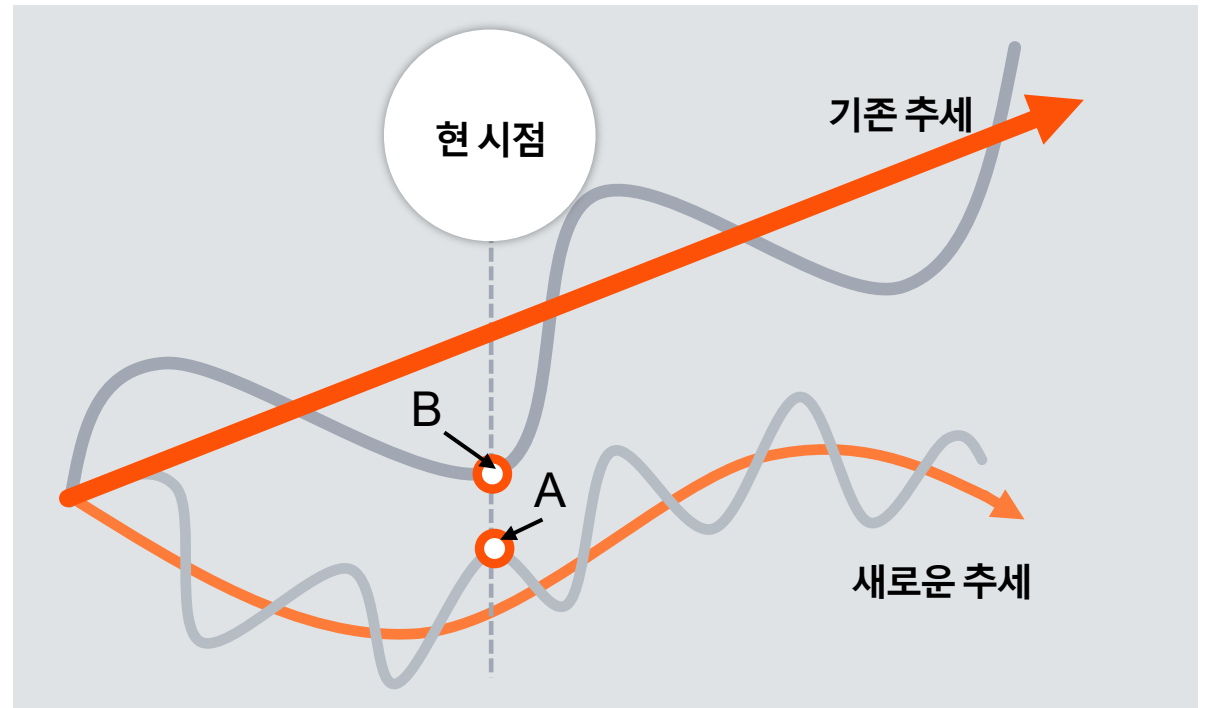
2. 맥락과 트렌드를 봐야 하는 이유

$$M\&A = f(\text{synergy, acquisition premium, transaction cost})$$

*시너지 효과 > 인수 비용 + 통합·거래비용

맥락이 바뀌고 있는 시기

게임의 판과 규칙 > 단기적 움직임



3. 4가지 맥락의 변화

$$M\&A = f(\text{synergy, acquisition premium, transaction cost})$$

글로벌 질서(Global Power) 변화 지정학적 변화에 대비되어 있는가?

- 미국의 변산: 국제질서 유지 비용 청구의 시대
- 미중 갈등: 미중의 강점 활용 → 미중의 약점 회피
- 글로벌 질서의 모습: 양극체제 or 열강의 시대(다극화)

거시경제: 공급 무제약 → 공급 제약 거시경제 시스템 변화를 상수화하고 있는가?

- 임금: 저임금(호의적 이민정책) → 고임금(반이민정책)
- 원자재: 풍부한 공급(러시아, 글로벌라이제이션)
→ 공급 병목과 분절(러우 전쟁, 지정학)
- 상품: 무제한 저가 공급(중국) → 제한적



기술(Technology) 변곡점 시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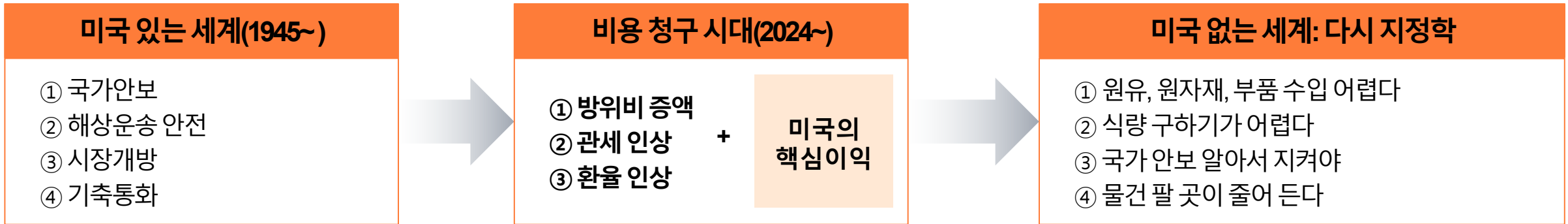
- 기술의 synergy: 생산성 향상 → 생존 or 초격차 or 역전
- 매수 가격: 연속적(continuous) → 양극화(polarized)
- 통합 비용: 예측 가능 → 변동성 증가(tech geopolitics)

국가 정책의 불안정성 정책·규제 환경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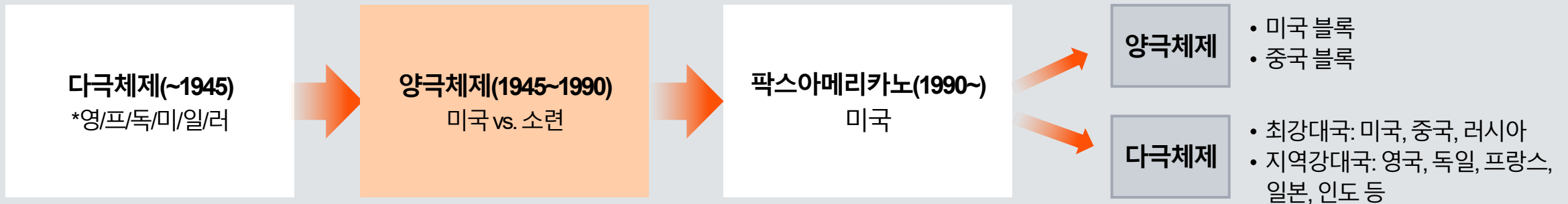
-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 정책 및 국가자본주의 강화
→ 당근과 채찍의 양극화 심화
- 성장·안정·개혁을 뒷받침 가능한 국가 거버넌스 국가에
자본 쏠림

3-1.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: 비용 청구의 시대로!

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은 글로벌 질서에서 손을 떼기 시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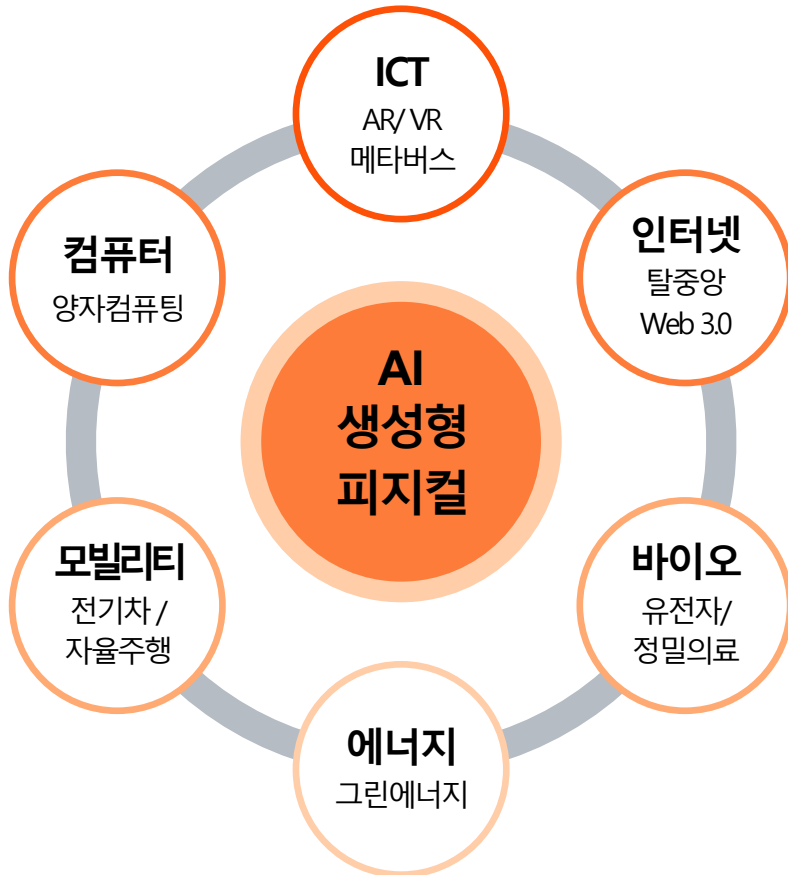
세계는 냉전시대와 유사한 양극체제로 갈 것인지, 아니면 열강의 시대와 같은 다극체제로 갈 것인지를 기로에 서있음



M&A 관점: 공급망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재배치 수요 증가

3-2. 기술 변곡점 시대

향후 수 십년 간의 패권과 국력을 좌우할 변곡점 기술의 폭증



- ✓ “향후 10년은 이전 100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술 발전을 경험할 것”
- ✓ 시장 파괴적 → 압도적 격차 vs 역전의 기회
- ✓ 기술 분업 시대에서 기술 안보, 초격차, 산업정책
⇒ 이제 독점적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

M&A 관점

조금 더 지켜보자

비싸도 지금 안사면 2~3년 뒤엔 아예 게임에서 밀린다.

3-3. 거시경제 시스템의 변화: 공급 제약 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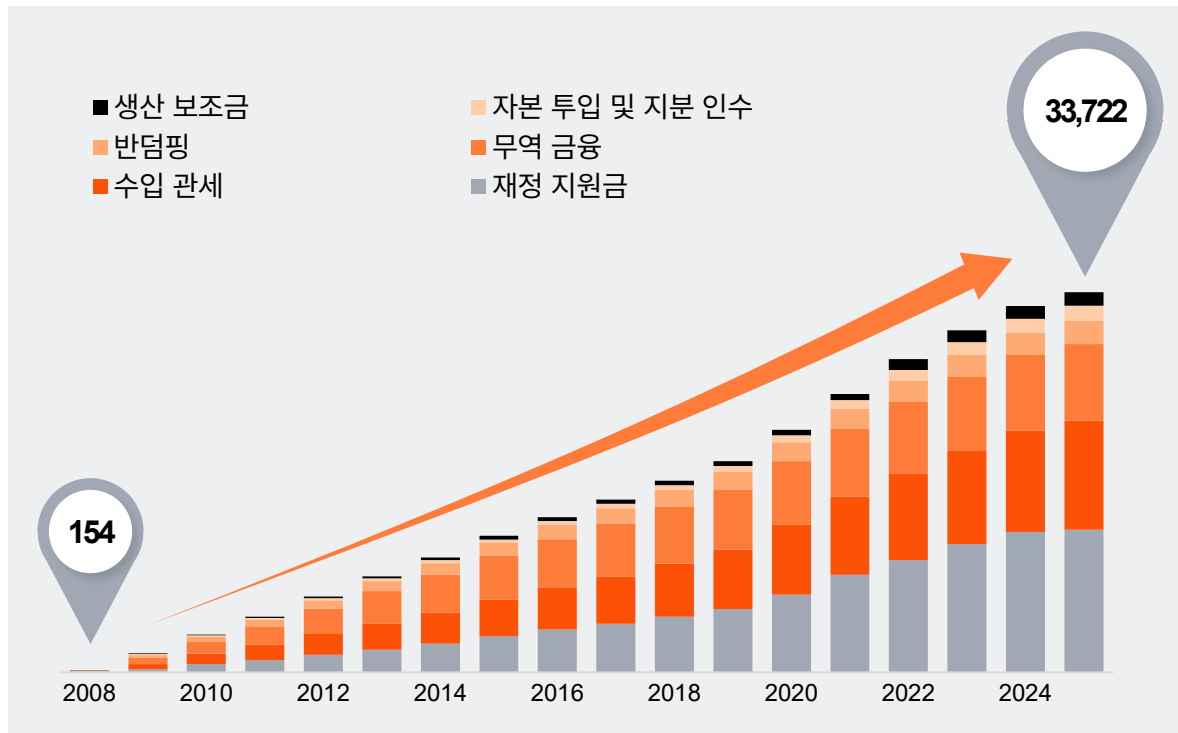
-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잘 안되는 경제 [인플레이션 민감 경제 ⇒ 이제 경기가 나빠져도 양적완화나 금리인하 어려움]



3-4. 국가정책의 중요성 확대

- (글로벌) 자국 산업 보호정책으로 회귀: 산업정책 복귀 + 국가자본주의
- (우리나라) 새정부 정책 기조

글로벌 산업 정책 개입 누적 건수 (연간)



우리나라 새정부 정책기조

신속한 의사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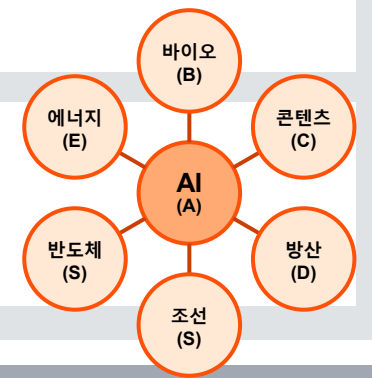
- 행정부와 입법부

기업정책

- 실물경제 vs. 자본시장
- 기업 vs 노동자

성장정책

- ABCDE + 2S
- 지역
- 재정과 금융(국가주도 펀드)



M&A 관점: 정책 정합성이 곧 밸류에이션

4. 경제전망 및 트렌드 변화 요약 및 종합

- 주요 결정요인: 금리와 경기사이클 → +트렌드 및 맥락의 변화
- M&A 대응: '지정확형', '가격보다 딜구조', '개선 보다 생존과 경쟁구도 재편', '효율 보다 재배치'

1	단기 사이클	경기는 예년 수준, 금리는 증금리에서 횡보, 다만 변동성은 확대
2	국제질서 변화	효율 → 리스크 분산, 안정성, 회복탄력성
3	기술변곡점 시대	King Pin 기술(Value Chain 점검) 생존 문제: 초격차 vs 역전의 수단
4	국가자본주의 정책	정합성 여부에 따라 극단적인 당근과 채찍 성장/안정/개혁의 교집합이 있는 국가 + 거버넌스
5	새정부 정책	M&A 결정 권력의 이동 실행능력 보다는 정당성 / 내부전략보다는 공개적 설득과정이 중요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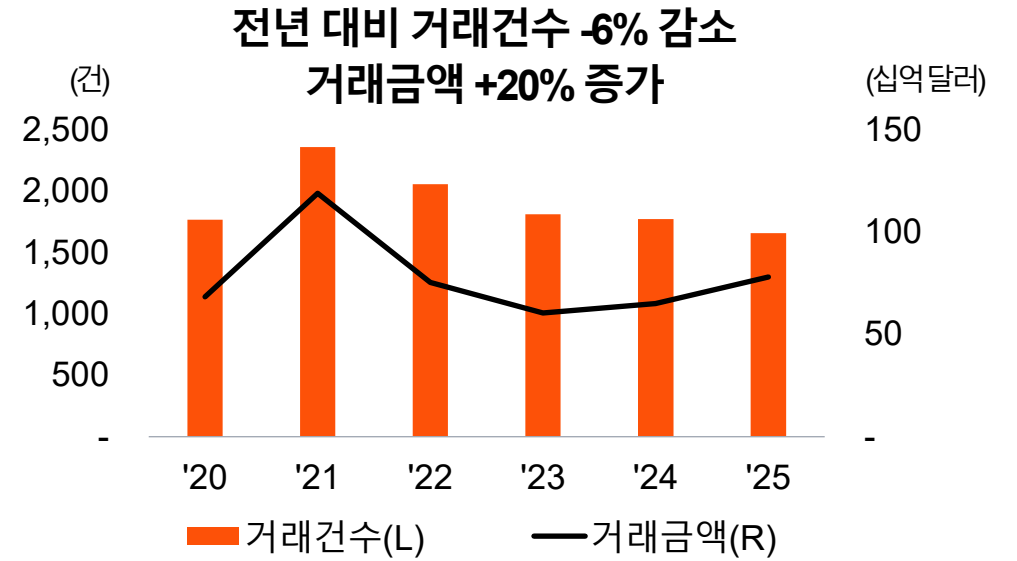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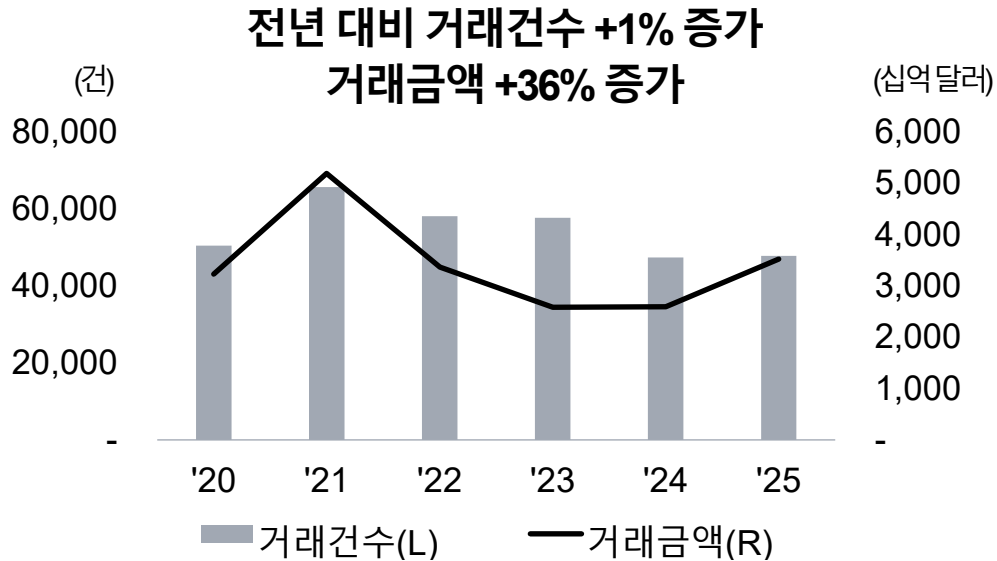
M&A 시장 전망 및 전략

1. 2025년 M&A 시장 Review

- '23년을 저점으로 M&A 시장은 점진적 회복 국면에 진입했으며, 대형 딜과 AI가 시장을 견인
 - (글로벌) 거래건수는 전년과 유사하나, 50억 달러 이상의 메가딜 증가로 거래금액 급증 (YoY +36%)
 - (국내) 거래건수 감소 흐름 지속되나, 대형 딜 증가에 힘입어 거래금액 확대 (YoY +20%)

	글로벌	국내
시장 규모 (2025년 기준)	거래금액 3.5조 달러(한화 5,011조 원*) 거래건수 47,827건	거래금액 781억 달러(한화 111조원*) 거래건수 1,657건

M&A 추이



* 원/달러 환율: 1,423원 적용(연평균 기준) 자료: LSEG, Dealogic and PwC analysi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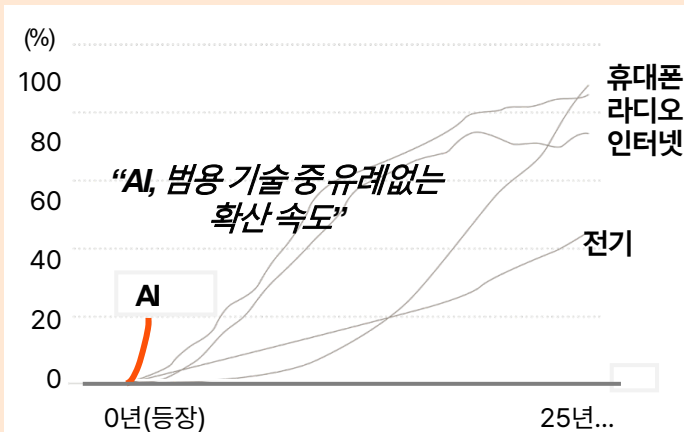
2. M&A 환경

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도 불구하고, AI 대전환·조달환경 완화·국가자본주의가 맞물리며 M&A를 견인할 전망

AI 대전환

- ✓ AI가 산업 전반에 범용 기술로 빠르게 확산
- ✓ AI 인프라 구축 위한 5~8조 달러 CAPEX 투자

AI 대전환: 주요 기술의 확산 속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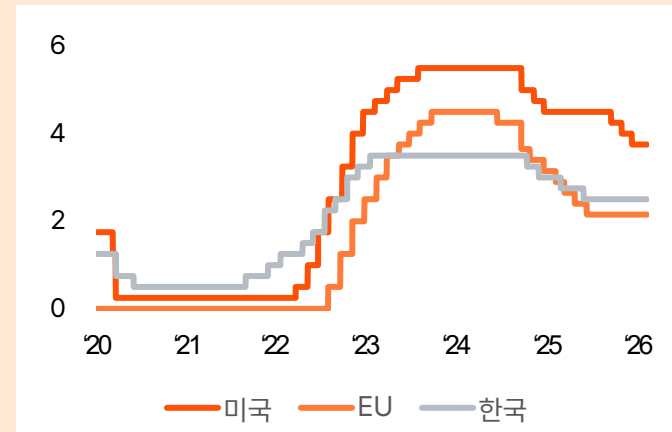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Microsoft, AI Diffusion Report (2025)

조달환경 완화

- ✓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로 전반적 금융 여건 완화
- ✓ 사모 크레딧 성장으로 대안적 자본 공급원 확대

우호적 조달 환경: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국가자본주의 확산

- ✓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핵심 산업 육성
- ✓ 한국도 전략산업 지정 후, 국민성장펀드(150조 원)
·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민관 합작 투자 유도

한국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: ABCDE+2S

AI	안전과 책임 기반의 'AI기본사회'
Bio	의료AI· 제약· 바이오· 헬스케어
Semi conductor	시스템 반도체· 파운드리 R&D 지원 및 인재 양성 등
Defense	AI, 무인로봇 등 첨단무기 개발 방산 생태계 확대
Energy	재생에너지중심 에너지 대전환
Culture	K-컬처 산업 성장
Ship-building	북극항로시대를 주도하는 K-해양강국 건설

M&A 주요 테마: AI + K-커브(양극화)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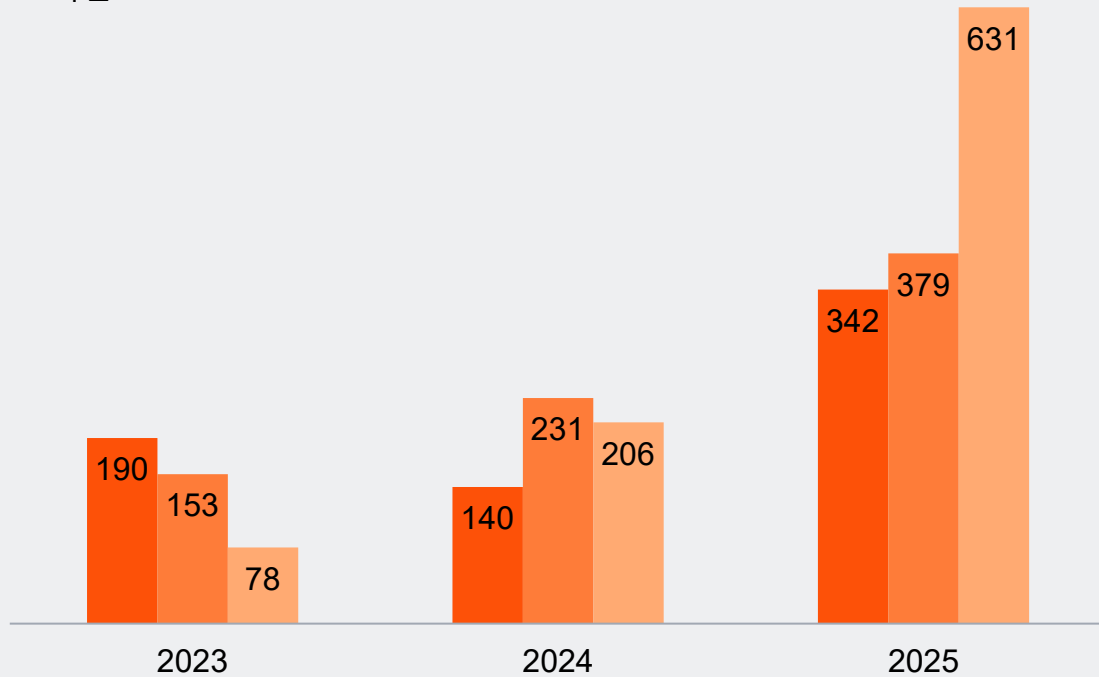
3. M&A 주요 테마 ① AI 투자 수퍼 사이클

- AI는 중장기적으로 M&A를 촉발하는 핵심 동력
- AI의 영향력이 M&A 시장에서 본격화되고 있으며, 이미 다수의 대형 거래에서 AI가 전략적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부상

AI 투자 동향

(억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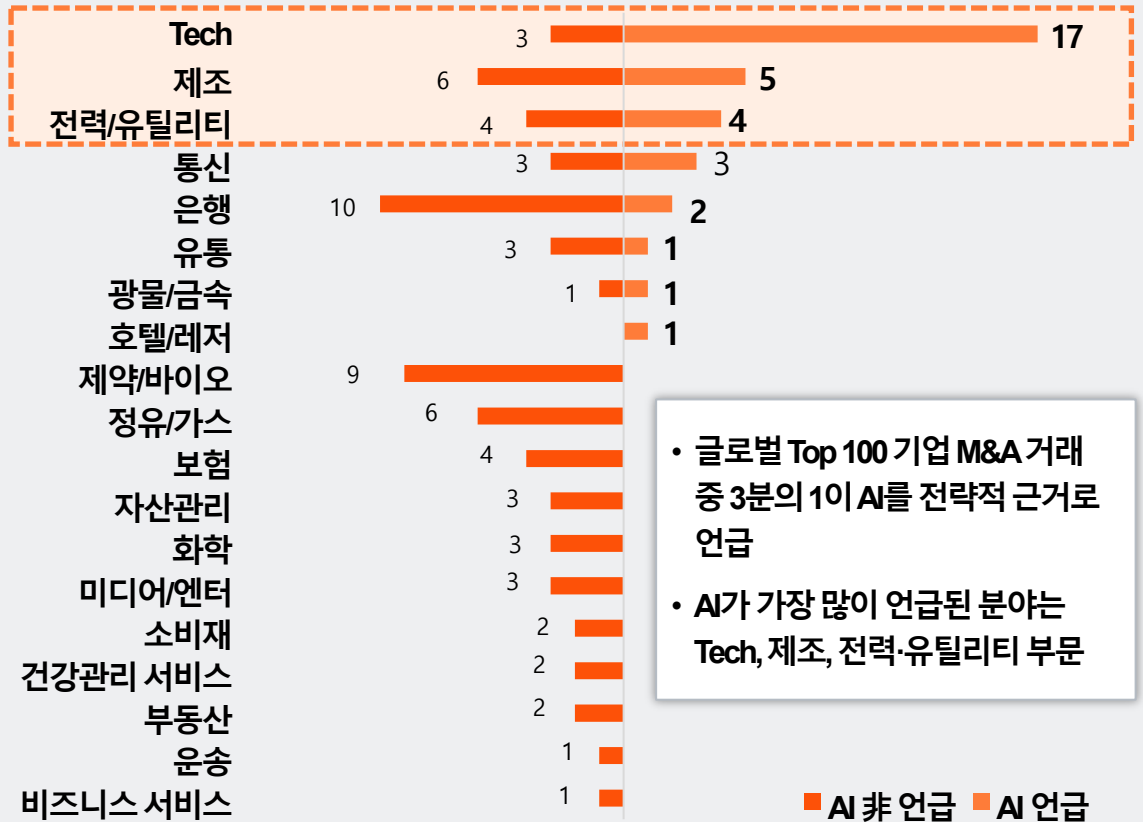
■ 기업 ■ VC ■ PE



* 1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AI 투자 중 대표 투자자가 명확한 거래만 집계

자료: Crunchbase

'25년 글로벌 100대 기업 M&A 분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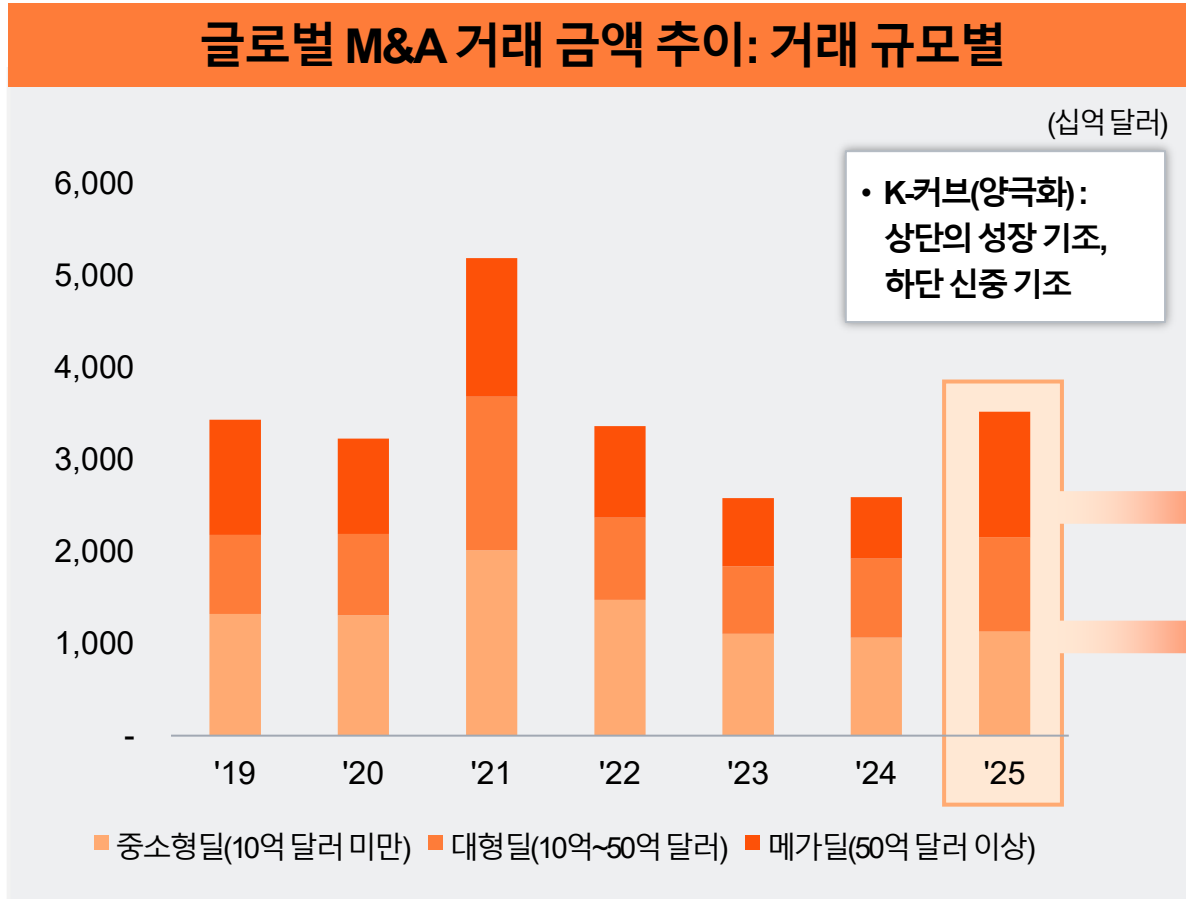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Top 100 기업 M&A 거래 중 3분의 1이 AI를 전략적 근거로 언급
- AI가 가장 많이 언급된 분야는 Tech, 제조, 전력·유틸리티 부문

■ AI 비 언급 ■ AI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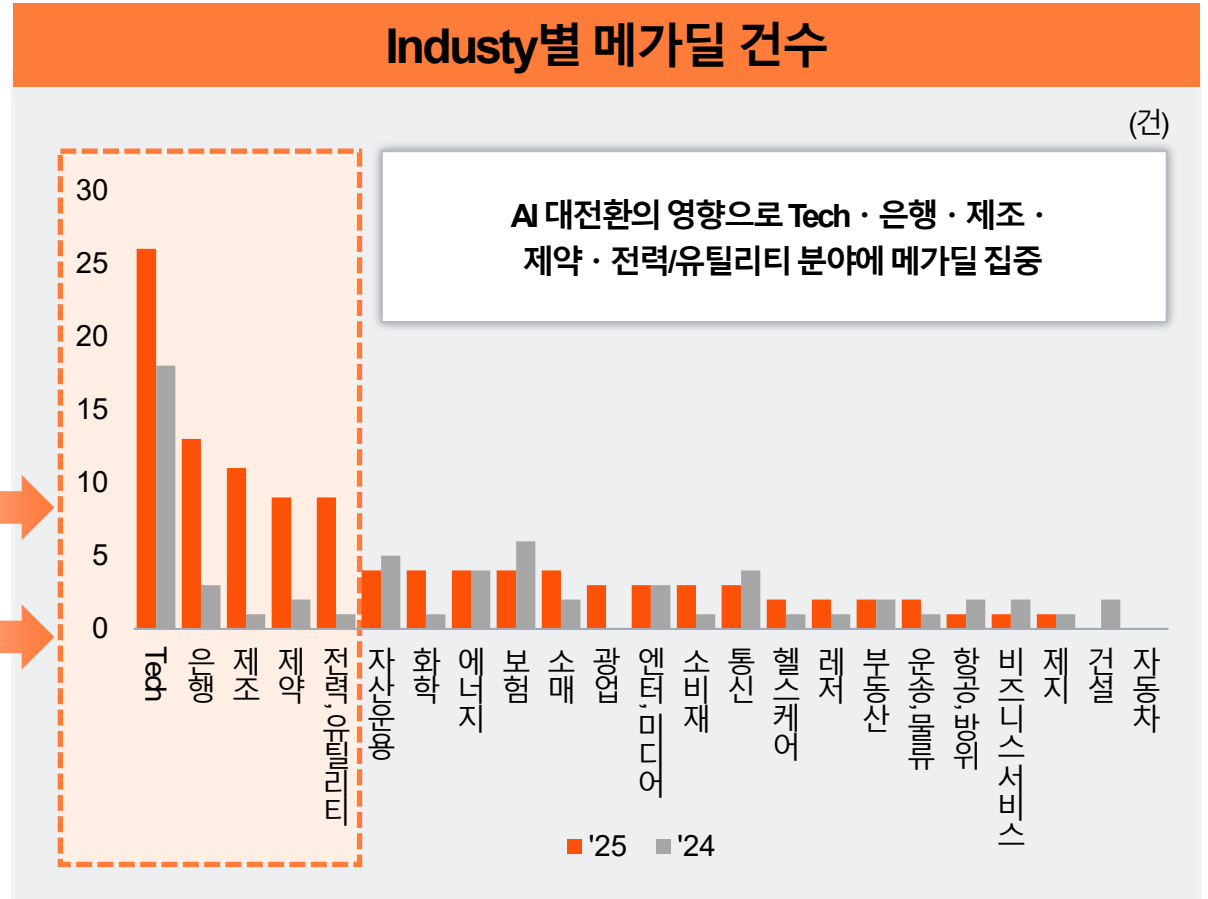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 and PwC analysis

3. M&A 주요 테마 ② K-커브(양극화) 심화

- M&A 시장은 전반적 반등이 아닌, 메가딜에 의해 견인되는 K-커브(양극화) 회복 양상 → 대형 거래 증가 vs. 중소형 거래 위축
- 전체 M&A 거래금액에서 메가딜 비중: '20년 32% → '22년 29% → '24년 26% → '25년 39%
- AI · 데이터 ·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며, Tech · 은행 · 제조 · 제약 · 전력/유틸리티 분야에 메가딜 집중



자료: LSEG and PwC analysis



자료: LSEG and PwC analysis

4. 2026년 M&A 시장 전망

1 AI 대전환이 이끄는 비즈니스 모델 재편

- AI 기술 확보 및 AI 밸류체인 내 주도적 위치 선점을 위한 전방위적 투자 확대
-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융복합이 가속화

2 K-커브(양극화) 시장 구조 지속

- '25년 M&A 시장, 메가딜 쏠림 현상 심화
 - '25년 메가딜은 111건으로 전년 64건 대비 76% 증가
- '26년에도 AI 인프라 투자 등의 '전략적·자본력 기반' 대형 거래가 시장 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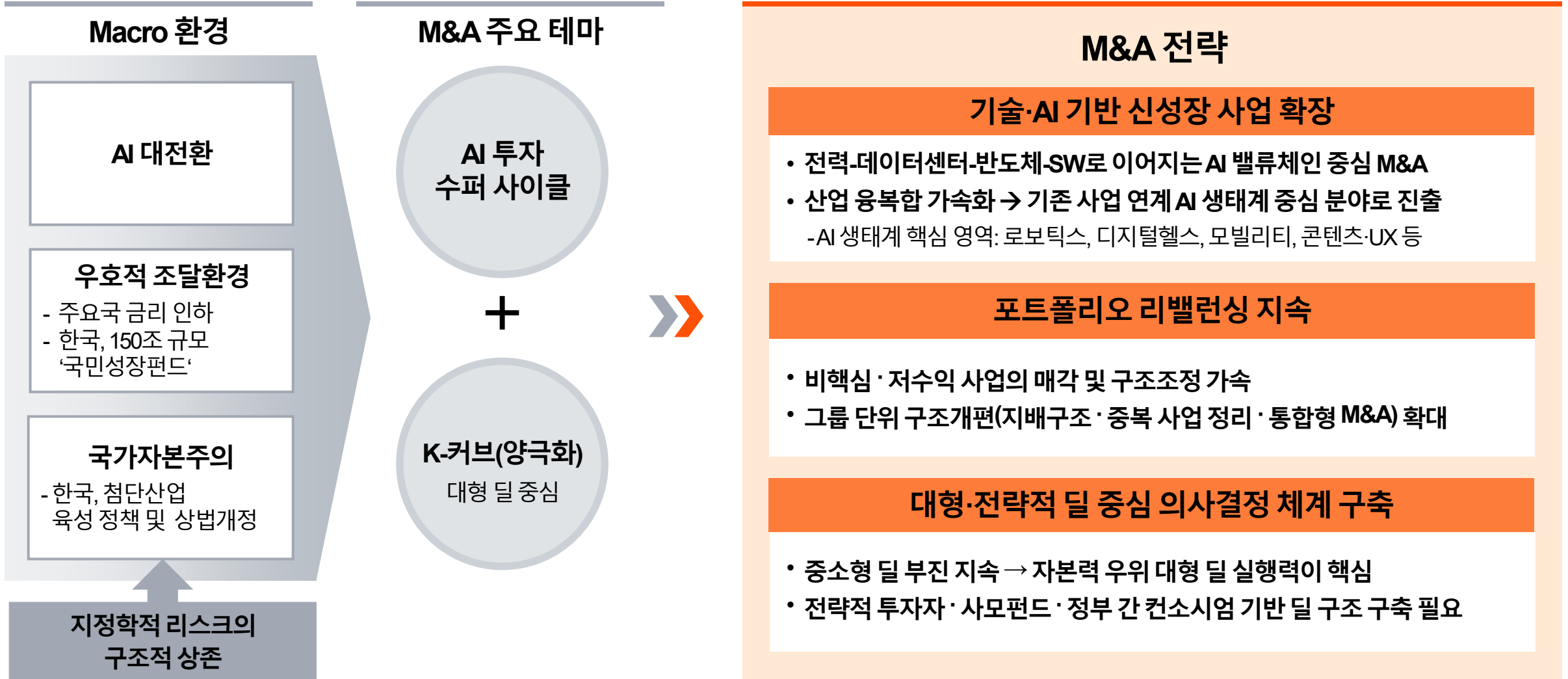
3 선택과 집중의 심화: Capital Allocation의 중요성 증대

- AI 도입에 따라 운영비 증가와 대규모 투자 부담이 동시에 가중
-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, Carve-out, 전략적 제휴 등 증가





AI와 대형 딜이
주도하는 M&A 시장



5. 2026년 M&A 전략



6. M&A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제언

1	<p>AI 버블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나,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변동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✓ 자본 시장 조정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계획 수립 + 비상 대응 계획 마련✓ 유동성과 유연한 자금 조달 구조를 통해 회복력을 강화할 것	
2	<p>‘자본 배분 원칙’ 수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핵심 경영 과제로 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✓ 한정된 자본 내에서 투자 수요를 균형 있게 관리하고, 전략적 목표와 정렬된 분야에 자본 우선 배분✓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단·장기 수익을 면밀히 평가할 것	
3	<p>AI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으며, 즉각적인 행동이 중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✓ AI가 촉발하는 산업별 구조 변화와 기회를 체계적으로 분석✓ 차별화 가속과 포트폴리오 을 위해 M&A를 적극 활용할 것	
4	<p>모든 거래에서 AI 실사를 핵심으로 인식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✓ AI 전략, 로드맵, 데이터 기반의 면밀한 평가가 중요✓ 3~5년 동안 AI가 기업 가치에 미칠 영향을 모델링하고, 경영진이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	

[Appendix 1] 주요 투자자 동향

사모 자본

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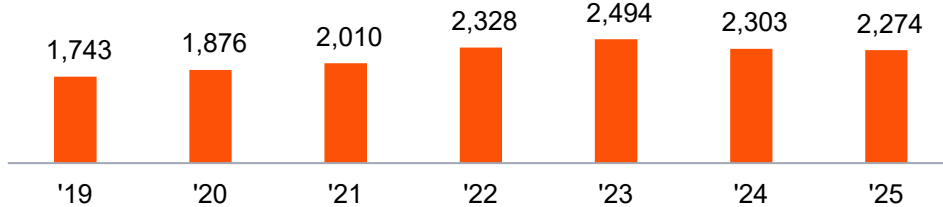
- AI·데이터 인프라 중심 투자 확대 +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가속화
 - 한정된 자원을 신기술·신성장 분야에 배분하기 위해, 기존 사업 구조 개편·조직 슬림화·자원 재배치 진행

PE

- PE는 풍부한 드라이파우더를 보유하고 있으며,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필요성이 점증
 - '25년 기준 드라이파우더 규모는 2.3조 달러 수준. 보유 기업 수는 약 3.3만 개에 달하며, 이 중 절반 이상이 4년 이상 보유
- AI 인프라 중심의 초대형·고도화된 거래가 PE의 핵심 투자축으로 부상
 - 데이터센터, 칩·컴퓨팅 인프라, 전력·에너지 인프라 등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영역에서 컨소시엄 기반 메가딜 확대

PE의 드라이파우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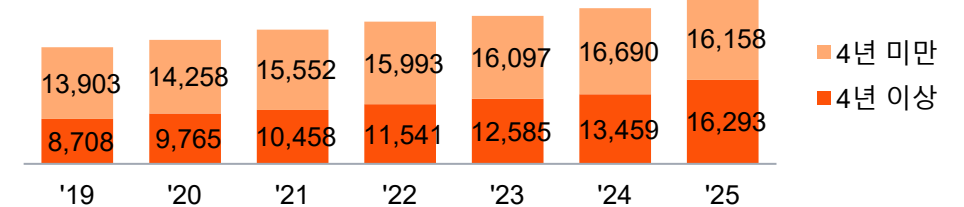
(십억달러)



Source: Preqin and PwC analysis

PE 투자 포트폴리오: 보유 기업

(건)



Source: PitchBook and PwC analysis

부동산

- 전통 자산군보다 AI·디지털 인프라 중심의 투자가 본격화 → 부동산 M&A의 새로운 사이클을 형성
 - 자본이 전통 상업용 부동산(오피스·리테일)에서 벗어나, 데이터센터·전력망·전기화 인프라·로지스틱스 등으로 재배치
 - 유럽·미국을 중심으로 인프라-부동산 융합형 대규모 거래가 확대

Thank you